

신혼부부 57% “집 없어”

통계청, 2016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 신혼부부 5쌍중 1쌍, 둘 중 하나 ‘재혼’

신혼부부의 57%가 집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 절반 가까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혼인 연차가 낮을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았다. 통계청은 28일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2016년 기준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신혼부부 2.4% 줄어...수도권 많이 살아

지난해 11월1일 기준 신혼부부는 143만7000쌍이었다. 1년 전(147만2000쌍)보다 2.4% 감소한 수치다.

초혼부부의 비중은 80.1%(115만1000쌍)였다. 나머지 19.8%(28만6000쌍)는 부부 중 한 명 이상 재혼한 경우였다. 재혼 비중은 최근에 혼인한 부부일수록 높아져 혼인 5년차에선 19.0%에 그쳤지만 1년차는 21.1%였다.

신혼부부 중 다문화 신혼부부는 8만9000쌍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남편이 한국인이면서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가 70.9%로 가장 많았다.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26.7%·38만4000

쌍), 서울(19.4%·27만8000쌍), 경남(6.5%·9만4000쌍) 순이었다. 17개 시·도 중 세종(22.1%)과 제주(1.6%)에서만 신혼부부 수가 늘었다.

동일한 거처에 함께 살고 있는 신혼부부는 전체의 86.3%(124만1000쌍)으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늘었다. 신혼부부 7쌍중 1쌍은 따로 살고 있던 것이다.

초혼보다는 재혼 부부에서 따로 사는 경향이 짙었다. 부부가 함께 사는 비중이 초혼은 87.9%, 재혼은 80.2%였다.

2015년 따로 살다가 지난해 거처를 합친 신혼부부는 전체의 6.2%(7만1000쌍)이고, 반대의 경우가 2.8%(3만2000쌍)였다. 따로 살다 함께 살게 된 부부는 혼인 2년차(2만7000쌍)가 가장 많았다.

◇자녀 둔 맞벌이 신혼부부 57.8%...외벌이보다 낮아

초혼 신혼부부 115만1000쌍중 현재 자녀를 낳지 않은 부부는 41만8000쌍(36.3%)이나 됐다. 1년 전(35.5%)보다 0.8%포인트 늘었다.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자녀를 출산한 부부의 비중이 높았다. 혼

인 1년차 22.9%에서 2년차가 되면 54.3%로 2.4배 많아졌다.

그러나 혼인 3~5년차가 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부부는 20.5%나 됐다.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0명이었다. 혼인 5년차(1.29명)가 되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1.17명)을 넘겼다.

지난해 10월 기준 맞벌이 부부는 전체의 44.5%(51만2000쌍)를 차지했다. 맞벌이 중 재자가 있는 부부는 57.8%에 달했다. 외벌이 부부(69.1%)보다 11.3%포인트 낮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도 0.71명(0.90명)보다 외벌이 부부(0.88명)보다 0.17명 적었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 중 재자가 있는 비중은 57.4%로 그렇지 않은 부부(70.1%)의 경우보다 낮았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도 0.71명으로 역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0.90명)보다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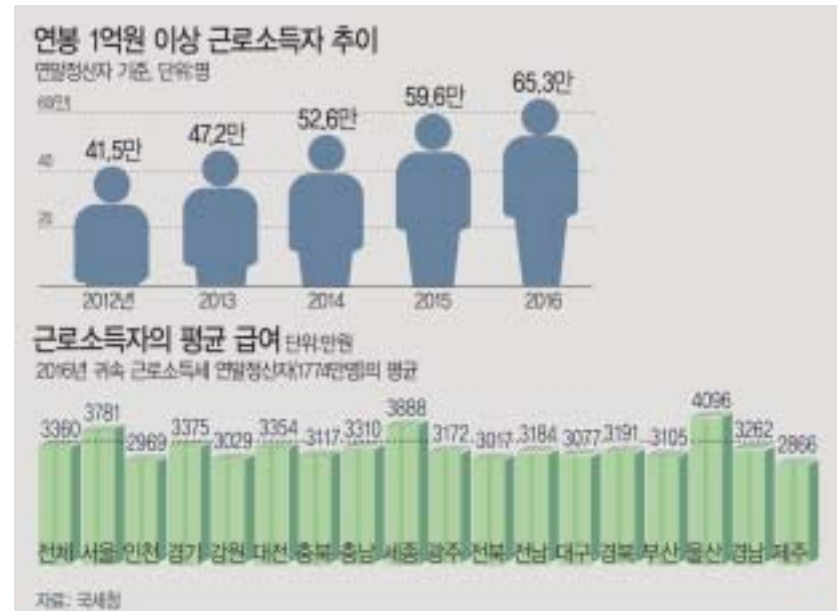
집이 없으면 자녀를 낳지 않거나 안 낳았다.

무주택 부부 중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60.5%로 주택을 소유한 부부(67.8%)보다 낮았다. 평균 출생아 수 역시 무주택 부부는 0.75명으로 유주택부부(0.87명)보다 적었다.

초혼 신혼부부의 만 5세 이하 자녀보육은 가정 양육이 49.9%로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 보육(42.8%), 유치원(3.1%)이 뒤를 이었다.

역대 연봉 근로자 65만3000명...전년비 5만7000명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근로자 평균 연봉 3360만원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가 전년보다 5만7000명 늘어난 65만3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336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5만3000명이었다. 이는 전년(59만6000명)에 비해 9.6% 증가한 수치다.

1억원 초과자가 전체 연말정산

다. 전체적으로 평균 급여액이 상승했으나 울산은 4102만원에서 4098만원으로 감소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774만명이었다.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근로자는 774만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3.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9000만원이었다. 금융소득의 비율은 45.1%를 차지했다.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3608명으로 2015년(3676명)에 비해 2.0% 감소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체(9만4129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2015년(3.3%)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46조 6051억원으로 2015년(134조7600억원)에 비해 8.8% 늘었다.

연말정산 신고자 중 남성은 1044만명, 여성은 728만1900명으로 여성비율은 41.1%였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2015년에 비해 0.6%포인트 늘어났다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토지의 양도 차익률은 2015년(59.8%)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한 59.5%로 집계됐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2015년에 비해 1.3%포인트 증가한 31.1%를 기록했다.

뉴스

가계 대출금리 3.59%로 또 올라...최근 3년내 '최고'

지난달 가계 대출금리가 또 올라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금리 상승세에 맞춰 대 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치솟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대출금리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영향이 크다. 은행계 AAA(5년물) 금리는 지난 10월 2.48%에서 지난달 2.60%로 0.12%p 올랐다.

담보대출 금리와 보증대출 금리도 각각 3.03%와 3.43%로 모두 전월보다 0.02%p, 0.06%p씩 상승했다.

기업 대출금리도 연 3.55%로 전월보다 0.09%p 올라갔다. 대기업(3.13%)과 중소기업(3.78%) 대출금리가 각각 0.02%p, 0.11%p 상승해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대출금리만 오른 것은 아니고 수

대출금리 지속적 상승세...주담대·신용대출 모두 ↑
수신금리도 올라...저축성 예금금리 평균 연 1.74%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59%로 전월(3.51%)보다 0.08%p 상승했다. 지난 8월 이후 석달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2015년 1월(3.59%) 이후 2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39%로 전월보다 0.06%p 올랐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3.38%)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고치다. 집담대출 금리도 전월보다 0.01%p 올라 3.33%를 나타냈다. 신용대출금리도 4.42%로 0.18%p 급등했다. 이밖에 예·적금

은행의 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지난달 연 1.79%로 전월보다 0.18%p 올랐다. 은행들이 자금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순수저축성 예금금리는 0.15%p 올라 연 1.74%를 기록했다. 시장형금융상품은 0.21% 상승한 1.99%를 나타냈다.

은행의 수신금리가 높게 상승하면서 예대금리치는 1.78%로 전월보다 0.07%p 내려갔다. 다만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예대마진(잔액 기준 총수신·총대출 금리차)은 2.27%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뉴스



광주신세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 실시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민도)는 오는 1월 5일부터 28일까지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지하 1층 식품매장 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배, 사과, 귤 등 농산 16품목, 한우 등 축산 30품목, 굴비, 갈치, 전복 등 수산 11품목, 멸치, 김, 육포 등 조리 식품 12품목을 포함한 총 150여가지 품목이 준비되어 있다.

지역광고문의: 062-224-5800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